朝鮮佛敎와 所依經典

本校敎授 包光 金 映 遂

朝鮮佛敎는 果然臨濟의 法孫이요 太古의 後裔로서 所謂經典을 別로 限定치 아니하는 禪宗인가 或은 經律論三藏을 所謂聖典으로하야 敎理를 闡明하는 敎宗인가 하는 問題에 對하야는 아즉까지 斷案的 解決이 無함으로 布敎上에 든지 敎育上에 든지 無主義 無主張하는 缺陷이 每樣多함으로 方今 佛敎專修學校에서 敎授하는 佛敎學科에 있서서도 엇더케하여야 適當할지가 問題이다 그럼으로 佛敎專修學校를 設立할 際에 制定한 學則에는 다맛 佛敎要旨라고 하고 何經何論이라고 分明히 指名한 것은 無함으로 누구든지 敎授之任에 當한 者가 任意로 取捨決擇하게 되얏다 써라서 敎育을 受하는 學生으로서는 將次 何經何論을 受學케될는지 預히 知得키 不能할 뿐아니라 去年一年生의 所學과 今年一年生의 所學이 반다시 一致되지 못할것도 事實이다 그러키 때문에 이제 朝鮮佛敎에서 엇더한 經論으로 所依聖典을 作하야 온것을 敍述하야 將來 敎科目 制定上에 參考될까 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佛敎々育界에서 所謂履歷이라 하는 四集四敎 大敎의 敎科目은 何時何人의 所定인가 現今 朝鮮佛敎를 法脈相續上으로만 觀察할 때에는 말할것도 업시 達摩의 法孫으로 不立文字하는 格外禪宗이니까 所依經典이라는 것이 有할理가 萬無하지만은 實地에 잇서서는 그런것도 아니다 達摩라도 自己의 所悟한 見性安心法을 宣布할 際에 障碍되는 名相執着을 除去하기 爲하야 不立文字를 主唱하얏스나 그러라고 佛陀의 所說 三藏十二部經論을 一時로 火中에 燒棄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達摩도 最後에 金剛楞嚴兩部經을 慧可大士의게 傳하면서 此經이 衆生敎化에 適當하다고 하얏다 六祖惠能大士도 金剛經으로 因하야 悟入한 後에 口訣까지 著述하야 世上에 流布하얏다 그리하야 後世에 이르러서는 禪宗에서 金剛經과 楞嚴經을 所依聖典으로 알고 崇尙하얏다 이外 細門이라든지 書狀이라든지 禪要라든지 하는것은 두말할것도 업시 禪宗僧侶의 所著로서 禪宗에 讀習하는 것이다 高麗中葉에 普

照國師가 定慧結社를 創하고 頓悟漸修의 學說을 主張한 後로부터 節要와 都序와 誡初心文이 禪宗一般에서 讀習하게된 것이다 그後 麗末에 至하야 懶翁의 弟子 野雲의 所著인 目警文이 또한 禪宗의 所修學科中에 參考되얏다 이리하야 金剛楞嚴禪要節要都序書狀細門自警初心拈頌等十種은 高麗時代부터 禪宗의 所修學科로된 것이다 然이나 이十種書物이 禪宗의 學科이라도 반다시 修하여야되고 반다시 先後次第가 有한 것은 아니드니 그後 碧松當年에 至하야 先히 都序節要를 敎하고 後에 禪要를 傳하기로 次第를 定케된 것이다 그런데 碧松當年까지도 아즉 禪敎各宗이 門을 分하야 自宗敎理를 爭宜하기에 沒頭하든 때임으로 禪宗에서 華嚴法華等經을 學科로하야 修學하기는 不能하얏섯다 碧松自己가 法華經을 講한 것도 開始인듯십다 淸虛의 四世法孫되는 月潭月霽에 至하야는 임의 天台華嚴等各宗이 다업서지고 單純한 太古의 法派에 屬한 禪宗만 남아잇게됨으로 네經 내經을 구태여 區別할 必要가 無케됨을 따라 禪宗의 僧侶로서 華嚴法華等敎宗의 崇尙하든 經典을 忌憚업시 講하기에 至하얏다 그럼으로 月霽和尙의 所謂大會라는 것을 設할 時에 一代의 履歷科程이 整然成立되얏다 此時에 잇서서는 華嚴宗의 聖典이든 華嚴經圓覺經과 天台宗의 崇尙하든 法華經과 元曉의 發心文이 禪宗의 學科中에 參케되야 初心發心自警細門으로 始作하야 書狀都序節要禪要의 四集을 讀習하고 次에 楞嚴法華金剛圓覺의 四敎를 硏究하고 後에 華嚴拈頌을 講케되얏다가 그後에 이르러 다시 四敎中 法華經을 拔去하고 代身에 起信論을 入하얏다。

此와 如히 履歷의 學科는 月霽當時에 完定되야 今日까지 우리 佛敎界에 必修科로된 것이다 然則 楞嚴起信金剛圓覺華嚴拈頌은 實로 朝鮮佛敎의 所依聖典이다 淨土宗이 萬一 淨土三經을 除하면 存在할 수 업스며 天台宗이 萬一 法華經을 外하면 生存할 수 업는 것과 한가지로 朝鮮佛敎에서 此六種經論을 離하면 成立할 수 업을 것이다。

一切衆生이 同一佛性이라 差別이 無하니라 (涅槃經)
一切法이 모다 佛法이니라 (般若經)